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

장 대 국

오늘 환경보호는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있으며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현 세대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세대에까지 미치는 도덕적태도문제로 논의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환경윤리학의 발생발전을 추동하였으며 특히 환경위기가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보호, 자연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집니다.》

환경윤리학은 환경을 개조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행동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세계적인 난문제로 등장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이바지할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발생의 장본인이며 환경파괴의 주범인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계급은 환경문제의 사회계급적근원을 가리우고 패륜패덕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을 내세워 온갖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환경윤리리론들을 꾸며내어 류포시키고있다.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은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력사무대에서 매장되어야 할 부르조아철학에 기초하여 인간의 본성과 존엄, 가치를 외곡하고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가치관, 윤리관을 고취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올바른 해결방도를 날조하고있다.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환경문제의 사회계급적근원을 외곡하고 자본가계급의 반인륜적인 환경파괴책동을 가리움으로써 패륜패덕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된 리론이라는데 있다.

원래 환경파괴의 주범인 서방의 부르조아지들이 환경윤리를 떠드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윤리도덕은 인간관계에 작용하는 리치, 사회적인간이라면 마땅히 량심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하는 고상하고 참된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도덕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을 체현한 인민대중의 도덕, 인민적인 도덕이다.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은 철저히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자본가계급이 저들의 반인륜적책동을 가리우며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위기와 혼란을 변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극히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인 환경문제가 놓여있다.

환경문제발생의 근본요인은 환경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업생산을 진행하는 자본주의제도, 자본가계급의 반인륜적인 환경파괴책동에 있다.

최대한의 리윤추구를 위한 잉여가치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리운을 짜내겠는가 하는데만 관심을 가질뿐 전사회적리익이나 근로자들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질수 없고 환경문제가 해결될수 없다.

서방의 공업국들은 환경오염산업을 규탄하는 자기 나라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자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형편을 악용하여 생태학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공장, 기업소들을 이 나라들에 재배치하고있으며 보관과 가공의 미명아래 독성 및 방사성폐기물을 비롯한 환경오염물질들을 꺼리낌없이 수출하는 반인륜적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전지구적인 자연환경의 파괴의 원인이 마치도 발전도상나라들에 있는듯이 묘사하면서 저들의 비도덕적행위를 가리우려고 책동하고있으며 한편 발전도상나라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으며 사람들의 환경의식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윤리문제가 윤리학상의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저들의 반인륜적책동이 드러나는데 겁을 먹은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은 부르쥬아어용학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환경윤리론들을 조작류포시키는데 달라붙었다.

그들은 개인리기주의로 일관된 썩어빠진 부르쥬아도덕에 기초하여 환경문제의 발생근원과 그 극복방도와 관련된 윤리적문제들을 외곡하고 도덕적과멸에 처한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부르쥬아환경윤리학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무제한한 탐욕과 망동, 인구의 지나친 장성,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적윤리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비도덕적태도 등에 의하여 산생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어느 한 부르쥬아학자는 1967년에 잡지에 발표한 《오늘날 우리의 생태위기의 력사적 뿌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류문명 특히 서방문명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비인간중심주의》의 환경윤리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려는 사람의 자주적요구를 외곡하고 극소수 자본가계급의 개인리기주의적탐욕을 《인류전체의 탐욕》으로 묘사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것이다.

부르쥬아환경윤리학자들은 말사스주의적연구방법을 가지고 인구장성이 환경위기의 결정적요인으로 되는듯이 외곡하여나섰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파괴라는 비도덕적행위를 《인류전체의 행위》로 몰아붙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조작류포된것이 바로 부르쥬아환경윤리학이다.

이처럼 부르쥬아환경윤리학은 자본가계급의 반인륜적인 환경파괴책동을 은폐하고 환경위기, 도덕적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는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을 가리워보려는데로부터 발생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리론이다.

부르쥬아환경윤리리론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존엄,

가치를 외곡하고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가치관, 틀리관을 고취함으로써 환경철리학의 과학적발전을 가로막는 이론이라는데 있다.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에서 출현한 부르조아환경철리학은 자기의 주장과 내용전개에서도 비과학성과 반동적성격을 드러내지 않을수 없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며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사회적관계에 작용하는 고유한 리치가 바로 틀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다운 틀리적관계는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관계, 인간에 대한 참다운 사랑과 의리의 원리가 작용하는 집단주의적관계이다.

그러나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틀리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개인리기주의, 극단한 인간증오사상을 변호하는 반동적인 틀리관만이 지배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적위기는 더욱더 격화되게 되며 이러한 도덕적혼란과 쇠퇴몰락을 가리우기 위한 반동적인 틀리리론들이 수없이 꾸며지고있는것이다.

부르조아환경철리학은 사람의 사회적본성을 외곡하고 사람을 자연의 한 부분, 자연적존재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철리학의 최대의 약점은 바로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여긴것이다.》고 하면서 《거대한 철리학혁명》을 일으켜 도덕공동체를 모든 생물계제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자연의 한 부분, 단순한 자연적존재로 보면서 선악판단의 기준을 외곡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이다.

부르조아환경철리학은 사회적관계를 반영하는 권리와 의무, 가치의 개념을 자연계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의 도덕적권리》, 《자연의 내적가치》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고있다.

부르조아환경철리학의 일부 대표자들이 제창하는 《동물해방》론, 《동물권리》론, 《천연물의 법적권리》론, 《심층생태학》, 《대지철리》이론과 같은것들은 동물중심주의, 생물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를 대표하는 이론들로서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자연의 도덕적권리》와 《자연의 내적가치》를 주장하고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동물들의 도덕적권리》를 부정하는것은 역사적으로 놓고볼 때 녀성들과 흑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한것과 같은 《종에 따르는 편견주의》이며 따라서 흑인해방운동, 녀성해방운동을 벌린것처럼 《동물해방운동》을 벌려야 한다는것이다. 한편 장애자나 태아, 갓난아이의 생존권을 부정할수 없듯이 자연의 생명체들도 생존할 권리, 인간과 무관계한 자기의 본질적인 내적가치를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을 옳바로 인식할 때만이 인간이 자연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자각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허황하고 비과학적인것이며 사회적존재인 사람과 자연적존재들과의 질적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반동적인 가치관, 틀리관이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사람의 리익실현에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사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의의있고 쓸모있는것, 사람에게 필요하고 리로운것만이

바로 가치있는것으로 된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높은 가치의 체현자는 바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 인민대중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것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

사람이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도 환경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조건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환경윤리학자들은 《자연의 내적가치》와 《자연의 도덕적 권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도덕적의무를 설교함으로써 마치도 환경파괴의 원인이 자본가계급의 반인륜적인 책동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릇된 윤리관, 가치관에 있는듯이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조아환경윤리이론들이 퍼뜨리는 윤리관, 가치관에 의하여 오늘 지구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세계경제는 해마다 1조 2 000억US\$의 손실을 보고있는데 2030년에 가면 그것이 2배로 늘어날것이며 2100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부르조아어용학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조아환경윤리학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을 철저히 폭로비판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환경윤리, 반동성